

대표 프로젝트

Smart Zendo

Bay House

Pets Playground

Sim-Plex Affl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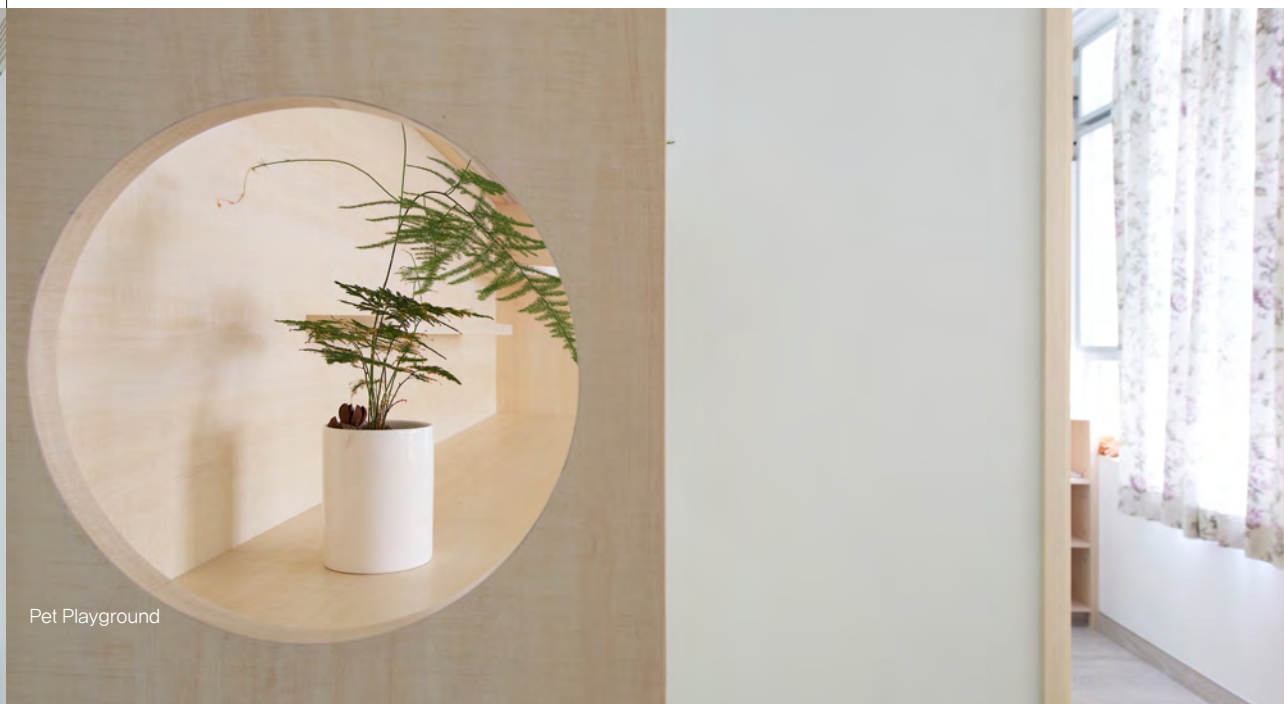


Pet Playground

Space, Basic of the Society
Sim-Plex

에디터 최지은
사진 제공 Sim-Plex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공간으로 해결한다.
심플렉스는 위와 같은 사명감으로 창의적이지만 현실적인
공간의 해법을 제안하는 스튜디오다.



Pet Playground



Tree House



Meditation Duplex

집의 형태와 구조만 보아도 출신 지역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국가나 도시, 문화권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한다. 그중에서도 홍콩은 면적에 비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으로 홍콩의 집들을 살펴보면 좁은 아파트 형식의 집이 많은 편인데 심플렉스(Sim-Plex)의 창립자 패트릭 램(Patrick Lam)도 이런 주거 공간에 익숙한 홍콩 사람 중 하나였다. 가우룽섬 구의 좁고 딱 찬 공간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경험은 패트릭에게 오히려 제한된 공간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게 만들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스튜디오 심플렉스를 설립했다. 덕분에 심플렉스는 공간의 가능성을 믿으며 공간 부족이라는 범 세계적인 현상을 해결할 무한한 방법을 풀어내고자 주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오피스, 공동 생활공간, 호텔 등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모든 작은 공간이 사회의 축소판이 될 거라 믿어요. 거시적인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미시적인 개별 공간에서 오는 거니까요.”

패트릭은 사회와 공간의 밀접한 연결성을 강하게 믿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공간이 포용해야 하는 기능, 요구사항, 생활 패턴 등도 항상 변화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변동하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공간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플렉스는 항상 고정되거나 제한된 레이아웃이 아닌 유연하고 다기능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입히고 있다. 디자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생활적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해 시안을 만든 뒤 정확한 소통으로 시공함으로써 상상력을 기반으로 했던 미지의 공간을 현실화한다.

“앞으로도 ‘Life Beyond The Limit’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계속해서 실현해 갈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 전체적인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앞으로 담당할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한계 너머의 삶. 패트릭은 꿈꾸는 공간을 정확하게 실현하기 위해 건축학, 예술학, 친환경 건축 등 다방면의 학위와 자격을 꾸준히 취득하고 있다. 보다 복합적인 시야를 갖춤으로써 다채로워지는 요구사항을 좁은 평면 안에 담아내려는 것인데 내부뿐 아닌 외부, 대지 맥락, 구조, 입면, 시공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발전을 원한다는 그의 말은 앞으로 심플렉스가 보여줄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는 듯하다.

디자이너 프로필

- 2010 Master of Architecture(CUHK)
- 2016 Master of Arts in Fine Arts (CUHK)
- 2020 Dezeen Awards
- 2021 Judge of Dezeen Award
- BEAM Pro
- Leed AP (BD+C)
- Hong Kong Design Institute (HKDI) 출강
- Hong Kong College of Technology (HKCT)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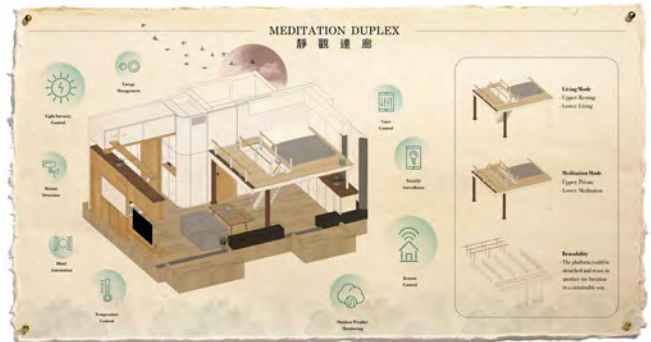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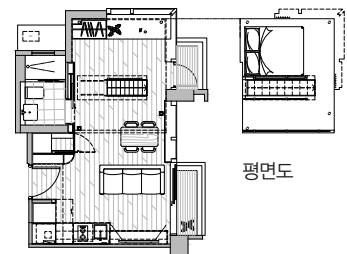
Meditation Duplex

Location / 홍콩 가오룽시
Area / 37㎡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많은 사람과 바쁜 일과를 보내기에 생활공간만큼은 극도의 평온함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 일환으로 최근 몇 년간 요가, 명상 등 내면의 수련에 집중하는 활동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명상 듀플렉스(Meditation Duplex) 프로젝트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젊은 부부가 살아가는 집이다. 바쁜 업무가 일상인 남편과 요가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심플렉스는 언제나 고요히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집을 계획했는데 37㎡라는 좁은 면적을 고려해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마이크로 유닛을 도입, 현대인들을 위한 최적의 보금자리를 구상했다. 먼저 마이크로 유닛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홍콩의 마이크로 유닛은 층고가 높은 대신 거실, 침실 공간이 좁은 경향이 드러났다. 이에 사생활은 보장하면서 더 넓은 휴식 공간을 보장



◀ 필요에 따라 전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단을 새로 만든 복층 구조물에 부착했다.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필요에 따라 꺼내고 넣을 수 있는 장치를 다양하게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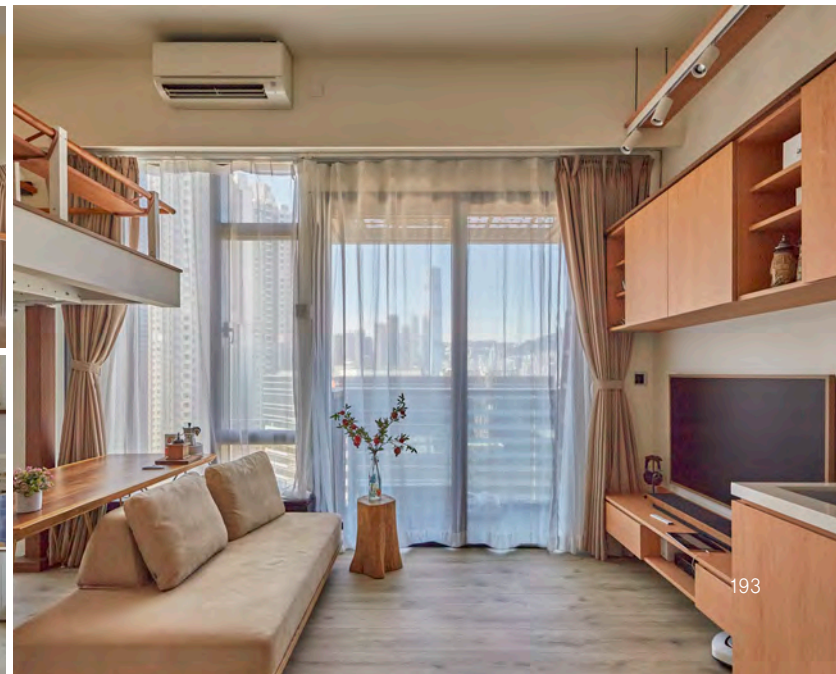
심플렉스가 제안한 일상 시나리오. 상층부와 하층부가 직접 연결되어 위층에서는 혼자만의 휴식을, 아래층에서는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명상 시나리오에서는 계단을 닫아 상층부의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하고 하층부에는 요가 및 명상, 친구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하는 동시에 명상이라는 비일상적 활동 공간이 일상 공간을 해치지 않고 최적화된 순환을 갖추도록 편리한 동선을 구획하고자 공간을 수직으로 활용했다. 원룸 형태의 단순한 구조에 자체적인 복층 구조물을 만든 것이다. 덕분에 공간을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눠 상층부에는 보다 사적인 휴식 공간을 집중시키고 하층부는 가구 배치에 따라 다채로운 시나리오를 연출할 수 있는 유연한 평면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복층 구조물도 형태를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접고 펼 수 있는 전동 계단과 탈부착 및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을 사용해 부부의 생활 방식에 따라 끝없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완성했다. 심플렉스는 계단을 열었을 때를 모든 공간이 직접 순환되는 일상 시나리오로, 계단을 닫았을 때를 명상 등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명상 시나리오로 크게 구분지었다.

또한 바쁜 부부를 위해 내부에 원격 제어를 활용한 스마트 리빙 시스템을 구축해 부부가 보다 편리하게 집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과도 연결되는데, 심플렉스는 한발 더 나아가 친환경 소재와 자연 환기 시스템을 비롯해 전체 분해 및 재활용이 가능한 복층 구조물 등을 이용해 지속 가능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힐링 듀플렉스 공간을 완성했다.





침대 디자인에도 자연적 요소를 담았다. 침대 지지용 기둥, 사다리, 수납형 계단은 유선형의 잎사귀 형태를 본떴으며 곳곳에 개구부를 만들어 자연광이 공간 전체를 투과하게 의도했다.

Therapy Tree Home

Location / 홍콩 가오룽시
Area / 232㎡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처럼 홍콩에도 보호 대상인 아동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NGO가 있다. 하지만 기존 공간 중에는 이미 노후화되거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테라피 트리 홈(Therapy Tree Home)도 그중 하나였다. 심플렉스는 이곳을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행복에 초점을 두고 곡선형 안전 설계와 자연수를 접목한 디자인, 포괄성과 독립성을 위한 가구 배치로 리모델링해 서로 다른 아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나무를 닮은 집

나무는 생명의 힘을 나타낼 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에 나무, 빛, 그림자가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숲의 풍경을 실내에 펼치며 나무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와 추상성을 나타내곤 소재, 패턴, 형태 등으로 통일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일관된 공간을 만들었다. 시설에 들어온 아이 중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도 있기에 각 침대와 개별 옷장, 책상을 함께 배치해 온전한 독립 공간을 보장했다.

포용과 독립적 자기완화 영역의 공존

아이들의 개별 공간을 위해 모든 침대를 병커 형태로 만들고 난간을



▲ 소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따라 내화성과 E0 등급의 포미카 보드, 난연성이 검증된 합판과 패브릭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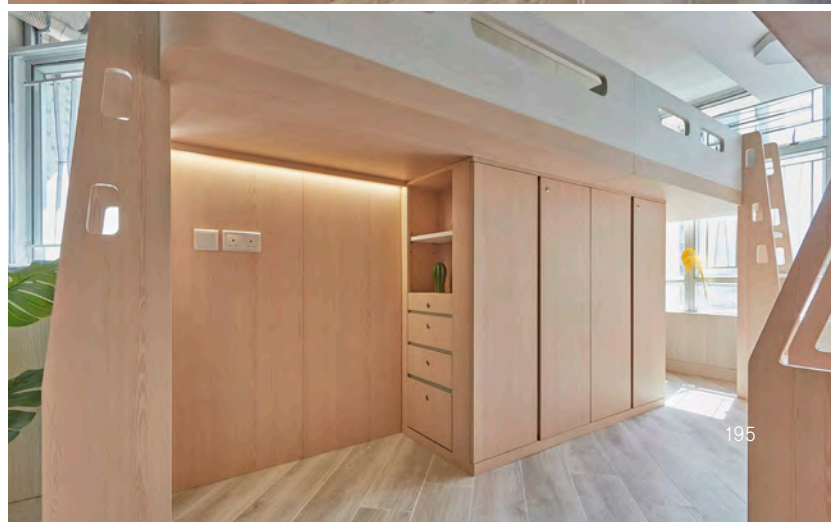
설치하되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 구속감을 줄이는 동시에 위탁가정 부모의 돌봄을 용이하게 했다. 아래편에는 책상, 수납장 등 필요한 가구를 연령대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따뜻한 흰빛 조명을 설치해 아이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이 독립된 공간에서 아이들은 나무의 움푹 들어간 홈에 숨은 듯 치유 효과와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안전을 위한 공간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프로젝트 전체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없앴다. 모서리를 둥글린 디자인은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전체 콘셉트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단풍나무, 재갈나무, 흰참나무 등 다채로운 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이고 풍성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거실은 소파, 식탁처럼 커다란 가구가 커피 테이블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구와 짝을 이루며 이 역시 충돌을 방지하고자 곡선을 적용했다. 일부 공간에는 자연 분위기를 향상시키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기를 불어넣고자 나무, 언덕 등에서 영감받은 패턴을 더했다.



모듈식 수납 장치와 다양한 유형의 계단과 소재를 갖춰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에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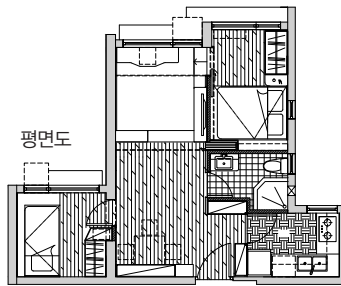




거실과 주방을 미닫이문으로 나눠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나 각 동물의 자유로운 활동이 필요할 때 공간을 분리할 수 있게 했다.

Pets Playground

Location / 홍콩 가오룽시
Area / 37㎡



펫 플레이그라운드(Pets Playground)의 클라이언트는 젊은 부부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이다. 이에 제한된 면적 안에서 부부와 시어머니, 부부의 앵무새와 시어머니의 고양이까지 네 그룹이 각자만의 공간을 영위하는 동시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다. 심플렉스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내 반려동물과 젊은 세대, 노년층의 공존하는 사회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자 했다.

앵무새와 고양이 그리고 세 사람의 동선

거실과 주방,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된 구조를 반려동물을 기준으로 나눴다. 먼저 거실과 연결된 안방을 부부가, 주방과 연결된 침실을 시어머니가 사용하도록 영역을 나눈 뒤 햇빛이 중요한 앵무새는 거실의 큰 창가에 배치했다. 전용 케이지를 창문 중앙에 설치함으로써 앵무새가 케이지 안에서 햇빛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앵무새를 풀었을 때 발에 묻은 모이가 집 전체에 흩날리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케이지를 낮은 수납장 위에 두었다. 시어머니는 고양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공간을 원했기에 입구부터 각종 주방 캐비닛에 둥근 구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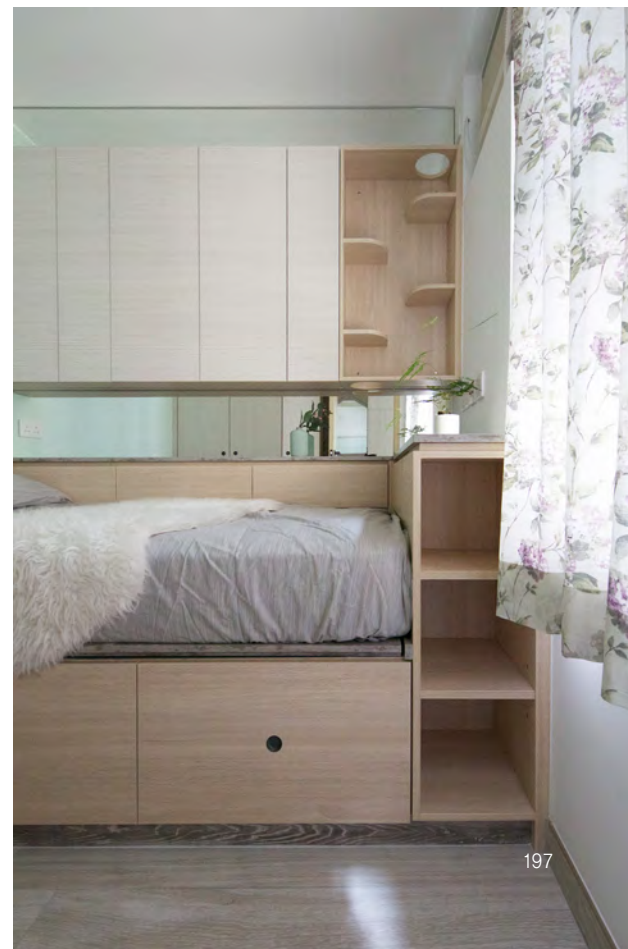
거실은 부부의 앵무새, 주방은 시어머니의 고양이의 주 활동 무대로 꾸몄다.



뚫어 고양이만의 동선을 만들어주었다. 이때 식탁을 식당 캐비닛과 일체형으로 설계하는 등 주방의 주요 대형 가구를 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고양이가 다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시어머니의 침실은 고양이 집과 통합되어 있으며 침대 앞 낮은 캐비닛부터 천장의 가장 높은 선반까지 오갈 수 있게 계획했다. 동시에 거실과 주방 사이를 유리창이 달린 미닫이문으로 나뉘 두 동물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답답함은 최소화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공존할 방법

3개의 미닫이문은 동물뿐 아니라 두 세대의 영역을 분리하는 역할도 한다. 부부 또는 시어머니에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는 미닫이문을 닫아 각자의 휴식 영역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낼 때면 문을 모두 열어 더 넓은 공용공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각 공간은 소재로도 명확한 차이를 두었다. 안방과 거실은 밝은 단풍나무와 회색으로, 시어머니 방과 식당은 화이트 오크를 메인으로 사용한 것으로 통일감을 위해 전체적인 톤은 밝게 맞춰 조화로운 느낌을 주었다. 또한 모든 목재 가구는 고양이 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태학적 멜라민 표면 보드로 만들어졌으며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폼알데하이드의 양을 줄였다. □





▲ 고양이 활동 영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가구 곳곳에 둥근 구멍과 빈 선반 등을 만들었다.



▲ 출입구 바로 옆에는 고양이의 화장실을 배치했는데 윗면에 쿠션을 두어 신발을 갈아신을 때 앉을 좌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거실과 주방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한 만큼 사용한 색감에도 차이를 주어 서로 다른 공간감을 느끼게 의도했다.



▼ 욕실 등 문과 창문을 집 형태로 마감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늑한 느낌을 살렸다.





▲ 시어머니 침실은 고양이가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구 디자인에 신경 썼다.

▼ 다이닝 테이블과 의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완전히 포개어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